

지난해 농가소득 4,697만원 역대 최대

농경연 자료, 농축산물 가격 상승 원인
올해 농업생산액 52조2,930억원 추정
생산량 증가에 따른 가격 조정 전망도

지난해 농가소득이 역대 최대로 상승했다. 농·축산물 등 식탁물가가 크게 뛰면서 원재료를 생산하는 농가들의 소득이 늘었다. 하지만 올해는 각종 품목의 물가가 조정되면서 소득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26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농경연)이 발표한 '2022년 농업 및 농가경제 동향과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소득은 4,697만원으로 추정됐다. 2020년

4,503만원에 비해 4.3% 증가했다. 농업 생산액은 작년 54조420억원으로 추정됐다. 전년 대비 7.8% 증가한 것으로 예상치(52조5,030억원)를 상회했다.

지난해 농가소득이 개선된 주된 원인은 농·축산물의 가격상승을 꼽았다. 채소·과일 가격 상승으로 재배업 생산액은 전년 대비 2.7%, 한우와 돼지고기, 달걀 가격 상승 등으로 15.3% 증가했다. 또 공익직불금 제도 도입과 수급조절 정책 등

정책효과와 코로나지원금 등으로 농가소득 개선에 영향을 미쳤다.

농경연은 2022년에는 농가소득과 농업생산액이 조정을 거칠 것으로 전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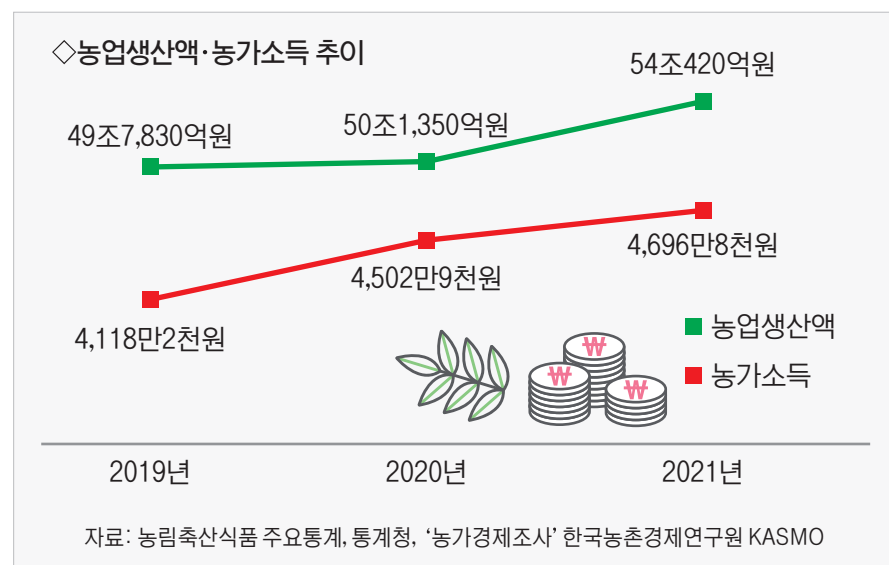
올해 농업생산액 전년 대비 3.2% 감소한 52조 2,930억원으로 추정했다. 재배업 생산액은 전년 대비 0.6% 감소한 30조 3,760억원으로 예상했다. 식량작물은 쌀 생산액의 변동이 크지 않아 전년과 비슷한 생산액을 유지할 것으로 봤다. 과일은 사과, 포도 등 주요 품목의 생산성 회복과 가격 하락으로 3.7%, 채소는 전년 대비 생산액 증가의 기여효과로 2.1%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축산업 생산액은 전년 대비 6.6% 감소한 21조 9,170억원으로 예측했다. 한우,

돼지는 도축량 증가로 가격이 하락해 생산액이 감소하고 닭과 달걀은 생산량 회복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농경연은 2022년 농가소득은 4,671만원으로 전년 대비 0.6%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농업소득은 6.9%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축산물 가격이 하락해 농업총수입이 감소하고, 농업경영비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기 때문이다. 이진소득은 코로나 지원금 축소 등으로 0.3%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농가인구는 전년 대비 1.7% 감소한 223만 7,000명으로 전망했다. 농가 수는 1.9% 감소해 99만 3,000호로 내려선다. 하지만 귀농귀촌 영향으로 농림어업취업



자 수는 증가할 것이라고 농경연은 설명했다. 경기면적과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각각 0.9%, 0.3% 감소한 154만ha, 157만ha로 전망됐다.

농식품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11.6% 증가하고 수입액은 7.4% 감소할 것으로 보

인다. 무역수지적자는 지난해 대비 9.9% 줄어든 213억 6,000만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 곡물, 채소, 과일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수입 과일과 육류 소비량은 증가할 전망이다. /황애란 기자

한전KDN, AI 활용 안전환경 구축

알고리즘 실시간 영상분석 사고 예방

한전KDN은 인공지능(AI) 영상분석 시스템을 적용한 스마트 플랜트 안전환경 구축 현장 실증을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한전KDN이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함께 진행한 합동 검증은 한국지역난방공사 동탄지사서 지난해 4월부터 진행해 최근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했다.

한전KDN은 2020년 11월 발전소 안전 기술 개발 협약을 한국지역난방공사, 휴먼아이시티와 체결했다. 이후 발전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인공지능영상분석 시스템을 출시해 인공지능 학습을 통해 제품 성능검증과 현장 상황을 솔루션에 반영해

왔다.

현장 실증은 인공지능 영상분석시스템(AI Vision)의 CCTV 영상분석 알고리즘을 통한 실시간 분석으로 화재, 연기, 안전도 미작용, 위험지역 출입 탐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감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현장 작업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목표로 한다.

한전KDN은 장기간 실증을 통해 위험 및 이상 상황 100% 탐지와 인공지능 재학습으로 오탐지를 5% 이내로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했다. 이어 꾸준한 재학습과 알고리즘 개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있다. /황애란 기자

한전KDN의 산업안전 예방에 특화된 지능형 소프트웨어인 APC시스템은 다수의 주요 발전 플랜트에 적용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기술적 혁신성과 사회적 필요성을 인정받아 중소벤처기업부의 우수 연구 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기성품과 달리 현장 데이터 학습과 최적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이 낮설게 느껴졌지만 짧은 시간 내에 성능이 향상되는 걸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다"며 "인공지능 영상분석시스템을 통해 산업재해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서덕기 한전KDN 스마트안전사업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처벌이 아닌 선제적 예방이다"며 "현장 실증을 통해 확인된 인공지능 영상분석기술을 활용해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황애란 기자



최근 아랍에미리트(UAE) 수도 아부다비에서 열린 2022 세계미래에너지정상회의(WFES 2022)에 참가한 한전KPS는 '팀 코리아' 홍보관에서 보유기술을 해외업체 바이어들에게 소개했다. /한전KPS 제공

한전KPS, 원전 기술력 세계에 알렸다

WFES 2022서 원자력 특수정비·터빈정비 설명

한전KPS는 정부의 중동 에너지외교 순방길에 발맞춰 아랍에미리트(UAE)에서 뛰어난 발전 기술력을 전세계에 알렸다.

26일 한전KPS에 따르면 최근 UAE 수도 아부다비에서 열린 '2022 세계미래에너지정상회의'(이하 WFES 2022)에 한국전력공시한 국수력원자력 등 원자력 산업계 9개 회원사로 구성된 '팀 코리아(Team Korea)'에 동참해 세계적인 원전

산업 관련 기술력을 알렸다.

팀 코리아 홍보관을 방문한 바이어들에게 한전KPS는 보유하고 있는 원자력발전 특수정비를 비롯해 터빈정비, 원자로냉각재펌프 정비, 성능진단 등 세계 기술표준을 잇는 기술수준을 설명했다.

특히 현재 UAE 바라카원자력발전소에서 시운전정비, 가동점검사, LTMSC(장기정비공사)를 수행하고 있어 바이어들의 신임도가 날랐다.

홍보관에는 수십 개의 업체가 다녀갔다. 향후 체코, 폴란드, 사우디 등 원자력발전소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국가에서 팀 코리아가 관련 사업을 수주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전KPS는 전망했다.

김홍연 사장은 "중동에서 열린 에너지외교 현장에서 UAE 원전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현황을 알림으로써 유럽으로 발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팀 코리아의 일원으로 해외 원전사업 수주에 첨병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HOTEL THE STAR

천년의빛 영광 자연과 어우러진 곳에서 최상의 편안함과 서비스로 고객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더 아름답게 빛나는 오늘을 더 스타에서 함께하세요

전 객실 에이스 침대 맞춤 제작 최고급 침구 사용

스탠다드 / 디럭스 투윈 / 프리미엄 디럭스 / 코너 스위트 / 프리미엄 스위트

HOTEL THE STAR 영광군 영광읍 옥당로 74 TEL. (061) 350-7900

한전KPS, 취약계층 후원 지역상품권·김장김치 전달

한전KPS는 최근 강동신상임갑사를 비롯한 임직원이나주시를 찾아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후원을 위한 70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300만원 상당의 김장김치 432kg(108박스)를 기탁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 김장김치는 지역 소재 사회적기업을 통해 구매했으며, 전달된 상품권 역시 나주 사랑상품권으로 구입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앞서 지난 20일에는 광주지방보훈청을 찾아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 보훈 가족을 위해 50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전달했다. 한전KPS의 보훈가족 후원은 지



난 2015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한전KPS는 이밖에 도 광주와 전남지역 초·중·고등학교에 코로나19로 인해 급변한 학습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4억원의 들여 정보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디지털 스

마트 학습장비를 지원했다. 또 자체 교육 시설인 인재개발원을 코로나19 격리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하는 등 지역 사회와 국난 극복을 위한 나눔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황애란 기자

농어촌공사, 소상공인 임대료 50% 감면 6월까지 연장

한국농어촌공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해 공사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 50% 감면 및 동결을 올해 상반기까지 연장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사 소유 부동산을 임차해 임대료를 지불하고 사용 중인 소상공인으로 기존 감면대상자는 오는 6월 30일까지

감면 기간을 연장한다.

지원 규모는 월 임대료 50% 감면 및 다음해 1년간 임대료 동결이다. 확진자 발생이나 방목으로 인한 임시휴업 업체는 해당 휴업 기간만큼 임대료를 면제받거나 희망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공사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사 소유 부동산을 임차하고 있는 소

상공인 업체 395곳에 임대료 35억 4,400만원을 감면했다.

김인식 사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 연장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황애란 기자